

강진군 마량면, 폭염·가뭄 선제 대응 나서

강진군 마량면이 지난 11일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내 주요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이어지는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벼 등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마량면 관계 공무원들은 관내 주요 양수장과 간이 들샘, 취입보 등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가동 상태와 용수 공급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최재영 마량면장은 폭염 속에서도 영농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가뭄에 대비해 양수기의 작동 여부와 송수 호스 연결 상태 등을 직접 살피며 가뭄이 발생하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확인했다. 마량면은 앞으로도 가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농업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보유 중인 양수기와 송수 호스 등 가뭄 대책 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재영 마량면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활용해 농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량면은 가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과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인들의 용수 부족에 따른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용수 확보 등 단계별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전운재 기자



가뭄대비 현장에서 양수기에 물을 붓고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 청계면 도시재생 ‘두:드림 실천 캠프’ 개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난 12일 청계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상인, 국립목포대학교 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 두:드림(Do: Dream) 실천 캠프’를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시재생 지역 역량강화 2기 과정으로, 지난 1기에 이어 청계면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참여형 제안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습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실무 경험을 쌓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총 6회차로 운영되는 이번 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습형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국립목포대학교 RISE사업단과 연계한 체험활동 5회와 선진사례지 견학 1회로 구성됐다. 접수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며, 5인 이상 모임·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 김장훈의 누워서 보는 콘서트 개최



목포시 해수 침수 우려지역 및 주요 방재시설 위치도 사진

/목포 시청 제공

(재)목포문화재단(이사장 강성휘)은 무더위에 지친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과 일반 시민이 모두 함께 즐기는 ‘김장훈의 누워서 보는 콘서트 in 목포’를 오는 8월 15일(토) 18시,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공연으로 운영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 실현

과 문화예술 향유 격차 해소에 의미를 두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최근 공연 진행 여부와 관련해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공연을 취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안전 우려에 따라 기존 야외 공연장에서 실내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8월 15일(토) 15시까지 인터넷 전용 링크인 네이버 폼을 통해 선착순 신청할 수 있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을지연습 연계 2026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다가오는 을지연습과 연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안보태세 확립과 기관 간 협조 체계 강화에 나섰다.

함평군은 13일 “2026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가 지난 12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을지연습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국가비상사태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대비한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기관별 역할과 협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이남오 함평군수 겸 통합방위협의회장과 김영인 함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부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 군사보고 ▲을지연습 일정 및 실시계획 공

유 ▲통합방위협의회장 인사말씀 ▲기관별 협조사항 전달 ▲통합방위 관련 의견 제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을지연습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대응하는 방안과 통합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전문가 슈퍼비전으로 고난도 사례 대응력 높인다

영암군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 슈퍼비전을 실시했다. 이번 슈퍼비전은 호남대학교 배은경 교수가 슈퍼바이저로 참여해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고난도 사례를 함께 검토

하고,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상황에 맞는 개입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대상자의 현재 상황과 욕구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지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대상자가 가진 강점과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함께 확인하며 사례별 특성에 맞는 실천 방안

을 논의했다. 영암군은 이번 슈퍼비전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실제 사례관리에 반영하고, 통합사례관리사들의 고난도 사례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기철 기자

신안군, 섬 빨낙지 음식특화거리 조성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압해읍 송공항 섬 빨낙지 음식특화거리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2026년 섬 빨낙지 음식특화거리 음식점 위생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영업자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별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먼저 업소별 사전 위생 진단을 시작으로 운영 실태와 위생 수준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 요인에 따라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사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주방 후드, 화구, 조리 시설 등 위생 취약 시설의 청결 관리와 개선을 지원하고, 식재료 보관·관리, 조리 기구 위생 관리, 주방 청결 관리 요령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위생 교육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박성태 기자

